금수강산

12

주체109(2020)
루계 제376호 월간

 ISSN 1727—9062

표지: 그리움의 12월
주체108(2019)년 촬영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이 강산에 차넘치는 12월이다.

조국인민들은 손에 손마다 꽃다발을 들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뒤표지: 칠보산의 겨울

편집: 박철만

차 례

그리움의 대하 · · · · · · · · · · · · · · 2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 · · · · · · · · 4

일 화

인민을 위해 바친 한평생 · · · · · · · · · · 5

수 기

잊을수 없는 모습 · · · · · · · · · · · · · · 6
최우선, 절대시 · · · · · · · · · · · · · · · 7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70여일 · · · · · · · 8
새집들이경사로 넘치는 기쁨 · · · · · · · · · 14
병사들의 어버이 · · · · · · · · · · · · · · · 16
기적과 위훈창조로 · · · · · · · · · · · · · · 17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기술개건으로 생산을 장성 · · · · · · · · · · 18
과학기술을 앞세워 · · · · · · · · · · · · · 19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 · · · · · · 20
효능높은 고려약품들을 생산 · · · · · · · · 22

무공해생물비료 《록색영양제》 · · · · · · · · 23
강냉이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여 · · · · · · · · 24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 · · · · · · · · 26
실내에서의 자연의 향취 · · · · · · · · · · · 28
아버지가 활약하던 축구마당에 서서 · · · · · 30
법적으로 담보되는 시책들 · · · · · · · · · · 31
상을 받은 장애자시인 · · · · · · · · · · · · 32
만화영화노래로 인기있는 학교 · · · · · · · · 34
계속되는 창작활동 · · · · · · · · · · · · · · 36
민족음식으로 인기모으는 신흥관 · · · · · · · 37

방문기

창조의 열매, 커가는 기쁨 · · · · · · · · · · 38

조국의 품에 안겨

생명을 지켜 40여년 · · · · · · · · · · · · · · 40

고향소식

항구문화도시 원산 · · · · · · · · · · · · · · 42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 · · · · · · · · 44

《백문이 불여일견》 · · · · · · · · · · · · · · 45

문 답

《네덩이의 얼음》의 의미 · · · · · · · · · · 46

군사대국화의 종착점 · · · · · · · · · · · 47

민족의 향기

강냉이쌈의 별미 · · · · · · · · · · · · · · 48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3) · · · · · · · · · 49

금야철새보호구 · · · · · · · · · · · · · · · 50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9) · · · · · · · 52

력사인물

다재다능한 녀인 신사임당 · · · · · · · · · · 53

지명유래

평안남도의 일부 지명들 (1) · · · · · · · · · 54

야 화

천하제일강산 · · · · · · · · · · · · · · · 55

명승-삼부연 · · · · · · · · · · · · · · · · · 56

상 식

구 주 성 · 26

건강에 좋은 들쭉 · · · · · · · · · · · · · · · · 29

숟가락문화 · · · · · · · · · · · · · · · · · · · 34

유모아

여름바람과 겨울바람 · · · · · · · · · · · · · · · 49

조선속담 (게으름) · · · · · · · · · · · · · · · · 55

02

12

20

27

39

41

그리움의 대하

12월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지나온 9년세월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은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민들과 동포들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충성의 마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인 공화국이 오늘 그이의 뜻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고있는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령수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그이의 위대한 생애의 밑바탕에는 순결한 헌신의 세계가 놓여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생의 전기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인민은 오늘도 그이께서 생의 마지막시기 리용하신 야전렬차를 생각하며 그이의 불철주야 헌신의 로고를 뜨거움속에 되새겨본다.

그이께 있어서 야전승용차와 야전렬차는 그대로 그이의 집무실이였고 정든 집이였다.

이제는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만 같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려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신 그이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그이께서는 그토록 불편한 몸이시였지만 인민을 찾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찬바람이 부는 12월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한 함경남도 함흥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것은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 안타깝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서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불같이 사신 그이의 위대한 혁명활동을 함축하면 인민이라는 소중한 두 글자가 남는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며 인민의 령도자,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따르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인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과 그이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올리며 그이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충성의 결의를 다진다.

해외동포들도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해외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키고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해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토로하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12월이다.

본사기자

금수산태양궁전(왼쪽)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오른쪽)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 주체108(2019)년 촬영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흔히 사람들은 해외동포들을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튀여나온 하나의 물방울에 비유하군 한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을 단순히 그렇게 보신것이 아니라 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 한집안의 식솔로 여기시며 온갖 믿음과 육친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일찌기 평양남산고급중학교시기 제1차 귀국선으로 조국의 품에 안기는 재일동포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맞이해야 한다시며 학생들을 인솔하시고 환영장으로 달려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동포애적마음으로 총련을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때로는 집무실에서, 때로는 달리는 렬차안이나 현지지도의 길에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믿음과 사랑은 뜨겁고 각별하시였다.

그이의 각별한 관심속에 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꼭같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 박사 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대지진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랑의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평양에 해외동포애국자묘를 세워주시여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힐것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도 풀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사랑속에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로력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자로 영생하게 되였다.

그이의 동포애적사랑은 재중, 재로, 재미, 재카나다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동포들이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민족의 아들딸답게 살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국에서 주요명절들을 맞을 때면 그들을 선참으로 찾으시여 경축행사장들에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생일상도 차려주시였으며 백두산과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명승지들에서 휴식하도록 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몸이 불편해하면 이름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지난날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이 품에 안아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이이시였다. 그 품에 안겨 인생의 전환을 하고 값높은 삶을 누려온 해외동포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도 있다.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보급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조국에서 태권도관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의 소망도 귀중히 여기시여 평양에 태권도관을 웅장하게 짓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태권도관이 다 건설되였을 때에는 《태권도전당》이라는 친필도 써주시였다.

하기에 그는 생전에 《내가 조국에 와서 흙 한삽 떴습니까, 나무 한그루 심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국에서 해외망명객에 불과한 저를 알아 내세워주고 태권도전당을 지어 온 나라가 태권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니 태권도를 만든 사람으로서 참으로 백골난망이올시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선생과 부인을 조국에 부르시여 은정어린 생일상을 차려주시였으며 최홍희선생이 인생말년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강력한 의료진을 조직하여 치료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끝내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그의 장례식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그의 가족을 잘 돌보아줄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그이이시다.

참으로 세상에 사랑의 의미는 각이하고 사랑의 품 또한 많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해외동포들모두가 처음으로 알고 체험한 참된 삶의 품이였으며 주의주장과 계급, 계층, 신앙을 초월하여 안기는 은혜로운 품이다.

오늘 조국땅에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한없이 숭고한 인간애, 민족애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일 화

인민을 위해 바친 한평생

하나라도 더

주체100(2011)년 3월 일군들에게 인민생활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득 다음해에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내놓는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서로 마주보았다.

이미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기 위한 계획을 장군님께 보고드리였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고 훌륭한것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만싶으신 장군님이시기에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지들도 계속 꾸려나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곱등어관을 건설하면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곱등어관을 릉라도에 건설하는 안과 대성산지구에 건설하는 안이 제기되였는데 릉라도에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릉라도에 건설하면 그곳은 교통조건이 좋기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것이라고 대안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해주시려는 그이의 구상은 그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곱등어뿐아니라 북극곰과 참대곰, 펭긴새도 들여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것들을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락

주체100(2011)년 12월 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문화휴식을 위해 마련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유희기대를 돌릴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유희기대를 정상운영할수 있다고 말씀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관리운영정형을 직접 료해하여보려 한다시며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유희시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지금까지 사고난적은 없는가, 유희시설료금은 얼마인가 등 그이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문제란 없었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일요일 추운날에 또다시 유희장을 찾아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내가 일요일 추운날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찾아온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는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 나의 락이라고 하시였다.

21시 13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밤이였다.

전날 불편하신 몸으로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밤에는 밤대로 집무를 보시였다.

그중의 하나가 인민들을 위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사실 나라가 경제적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인민들은 명절날은 물론 여느날에도 여러가지 물고기를 먹을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두고 마음쓰시면서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는 한편 명절때면 다른 나라에서 물고기를 들여다가서라도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이해에도 그런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이이시였다.

전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태와 청어를 들여다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었는데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하였다고, 나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이 명태와 청어를 들여다 새해를 맞는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다하였습니다.》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로고를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사무치게 느끼며 일군들은 즉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대책안을 세워 그이께 보고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렬차를 긴급동원하여 물고기를 수송하도록 친히 대책까지 취해주시고 문건에 비준하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수표하신 문건이였다.

그때가 21시 13분이였다.

본사기자

잊을수 없는 모습

사람은 한살, 두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군 한다.

그때마다 내가 받은 박사메달과 더불어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주체100(2011)년 10월 어느날이였다.

리과대학 화학부 교원으로 일하던 나는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에 나가있다가 그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일군들로부터 그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내가 개발한 석탄연소첨가제가 전시된 진렬대로 오시였다.

내가 올리는 인사를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진렬대에 전시된 석탄연소첨가제는 자신께서도 아는것이라고 하시며 나에게 어떻게 만드는가고 물어주시였다.

나는 어려움도 잊고 조국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첨가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였다.

나의 설명이 끝나기 바쁘게 동행한 공장일군들이 로동자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고 상세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좋은것을 연구하였다고, 이 동무에게 박사학위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박사학위는 내가 주는것이 아니라 실지 그 덕을 보고있는 인민이 주는것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때 나는 그 영광이 너무도 커서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시간이 얼마 흘러 공장의 일군이 나에게로 다가와 빨리 기념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이끌었다.

문밖을 나서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공장의 일군들이 벌써 다 자리를 잡고 서있었다.

창황중에 맨 끝자리에 가서 자리잡은 나는 옷매무시를 더듬었다.

이때 내가 서있는 쪽을 주시하시던 그이께서는 나를 자신의 가까이로 불러주시는것이였다.

누구인가의 손에 이끌려 그이가 계시는 가운데 앞자리까지 가는 불과 몇발자국을 어떻게 옮기였는지 나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날 나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금시런듯 귀전에 울려오고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머리가 숙어져서였다.

늘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고 그 길에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실 때 제일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였고 그이의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이였다.

바로 그래서 그이께서는 나의 자그마한 연구성과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것이였다.

하기에 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내가 개발한 첨가제를 전국의 많은 단위에 확대도입하였으며 그 나날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의 영예도 지니였다.

전국의 여기저기서 인민들이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올 때면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군 한다.

비록 그이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지만 그이의 모습은 날과 달이 흐르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어버이의 모습, 스승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리과대학 부학장 박윤삼

최우선, 절대시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8, 9, 10호가 조국의 동서해안을 비롯하여 전반적지역을 무섭게 휩쓸었다.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도로와 철길들이 파괴되고 적지 않은 농경지가 침수되였다.

그때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오늘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은 말끔히 가셔졌다.

피해지역들의 면모가 너무도 짧은 기간에, 너무도 훌륭하게 일신되였다.

피해지역 어디 가나 새집들이로 기쁨에 눈물짓는 인민의 모습뿐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올해가 재앙의 해, 재난의 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 인민들에게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해이다.》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눈물이 절로 나온다. 그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긍지높은 인민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인민의 목소리처럼 진실한것이 없고 인민이 흘리는 눈물처럼 뜨거운것이 없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것을 다시 찾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재해를 당한 운명을 책임져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품이 자기들곁에 언제나 있다는 행복감에서 오는 감격이다.

그 품을 떠나 한시도 못산다는 진리를 이번 재해기간 인민은 다시금 뜨겁게 체험하였다.

천사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물이 채 찌지 않은 진창길로 재난을 당한 대청리의 인민들을 제일먼저 찾으시여 상처입은 그들의 가슴에 정과 사랑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련이은 태풍으로 함경남북도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즉시 현지에 나오시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고 돌아가시는 길도 뒤로 미루시고 수도당원들에게 한자한자 쓰신 공개서한의 매 글줄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속에서 더 뜨거워진다.

인민은 령도자의 사랑을 페부로 뜨겁게 절감하였다.

군당위원회청사들이 수재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보장에 이르기까지 수재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즉시에 세워졌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종합한 새 살림집의 설계가 완성되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련이어 현지에 나가 재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돌봐주었으며 수도당원사단들이 피해지역들에 급파되였다.

지금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이 되새겨진다.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

그뿐인가.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여서는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해주신 그이이시다.

건설중에 있는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여서는 산비탈면에 낡은 단층살림집들이 들쑹날쑹 비좁게 들어앉은것을 보시고 큰물피해를 받은 천여세대나 다시 건설해놓는것으로써는 정말 량심이 허락치 않을것 같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로 전변시킬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진정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들생각만이 꽉 차있다.

그이의 정치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그 길에서 자그마한 타협이나 양보를 모르신다.

바로 그런분이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식연단에서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민들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보내신 그이이시다.

하기에 인민은 파괴적인 재앙을 당했어도 원수님께서 계시는데 걱정이 무엇인가, 원수님만 믿으면 모든것이 다되는 법이라고 스스럼없이 마음을 터놓는다.

집을 잃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홍원군의 한 주민이 터친 말이 떠오른다.

《제일먼저 떠오른 생각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것이라는 확신이였습니다.》

본사기자 김성경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70여일

지난 11월 20일 수도 평양은 환영의 열기로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공개서한을 받들고 피해복구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여 돌아온 수도의 당원들을 시민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70여일간의 나날에 수도의 당원들은 피해복구지역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지난 9월 재차 들이닥친 태풍9호가 동해안의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전반적지역을 재난의 소용돌이속에 몰아갔다. 도로와 철길이 끊어지고 농경지가 침수되였을뿐아니라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현지에서 상황을 료해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수도의 당원들에게 터놓기로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 태풍피해현장에서 한자한자 쓰신 공개서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는 수도당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하루빨리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하자고 하신 그이의 호소는 수도의 모든 당원들을 피해복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서한이 발표된 다음날 하루동안에만도 수도의 수십만 당원들이 피해복구에 탄원해나섰으며 58시간만에는 1만 2 000명으로 무어진 수도당원사단들이 현지로 급파되였다.

공사는 방대하고 조건은 어려웠지만 수도의 당원들은 시작부터 백열전을 벌리며 난관을 이겨나갔다.

그들은 숙식조건마련에 앞서 살림집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도로와 다리, 철길들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도 복구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보통때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건설속도들이 련일 창조되였다.

제1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단 7일만에 살림집골조공사를 결속하고 10일만에는 총공사량의 70%계선을 돌파하였으며 제2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불과 10여일만에 벽체축조와 내외부미장공사를 전부 끝내고 아담한 새 마을의 자태를 펼쳐놓았다.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치렬한 결사전을 벌린 끝에 착공 18일만에 홍원군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0여세대의 문화주택이 일떠섰으며 김책시 춘동리, 은호리, 석호리에서도 살림집건설이 완공되여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인 10월명절전으로 사단들은 맡은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이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끝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상봉도 뒤로 미루고 스스로들 피해가 제일 심한 또 다른 복구지역들에로 달려갔다.

허천군의 피해지역으로 이동전개한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8㎞의 파괴된 도로를 3일동안에 복구하고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십세대의 소층살림집건설을 끝낸데 이어 하천정리

피해복구전투장으로 떠나는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와 다리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제2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도 어랑군피해복구장에서 살림집건설뿐아니라 수천m에 달하는 도로포장공사를 결속하는 등 공사실적을 올리였다.

수도당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7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홍원군과 리원군, 허천군, 김책시와 어랑군의 피해지역들에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도로와 하천들이 복구되였다.

70여일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는 너무도 크고 자랑찬것이 아닐수 없다.

그들은 전문건설자들도 아니였고 건설경험도 없었다.

그러한 그들이 피해지역들에 지방건설의 기준,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은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에 건설된 살림집들을 보시면서 이 살림집들은 바늘끝조차 들어갈 틈도 없는 충성심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도당원들속에는 교원, 연구사도 있고 로동자, 사무원들도 있다. 귀여운 아기의 어머니도 있으며 신혼부부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직업과 나이, 성별은 달라도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지향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사는 조선로동당원의 남다른 긍지와 함께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언제나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조선로동당원의 높은 자각과 본분이다.

바로 이런 그들이기에 조국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때 당원이 설자리가 과연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값높은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하기에 수도시민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의 위훈을 긍지롭게 생각하며 뜨겁고도 열렬히 포옹하였다.

살림집건설전투를 벌리는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

평양에서 보내온 편지도 받아보며

재앙의 흔적을 가시고 일떠선 마을들의 일부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중앙통신

피해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을 수도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새집들이경사로 넘치는 기쁨

큰물과 련속 들이닥친 3차례의 태풍으로 모든 것을 휩쓸어갔던 피해지역들이 지난 10월 면모를 일신하고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지난 8월 큰물로 수해를 입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마음이 제일먼저 가닿았던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가 천지개벽을 이룩하였다.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살림집 820여동이 훌륭히 건설되여 수재민들이 보금자리를 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새 살림집들은 입사하는 주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대청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양히섭로인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고 큰물로 집을 잃었을 때에는 억이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원수님의 은덕에 화가 복이 되여 오늘은 대청땅에 이렇듯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졌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은파군 대청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현철은 뜻밖의 재난을 당한 때로부터 흘러온 수십일간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더욱 소중히 간직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오늘의 이 행복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다수확의 자랑찬 성과로 당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토로하였다.

대청리만이 아닌 분계연선도시 개성시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피해지역들에도 선경마을들이 펼쳐졌다.

개성시의 150여세대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령도자의 축복을 받으며 새 집들에 입사하였다.

당창건절전야에 개성시피해복구지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의 입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친히 새집들이하는 주민세대들에 행복을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것을 사랑의 친필에 담아 당부하시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은 주민들은 감격과 격정으로 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목청껏 《만세!》로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민을 자신의 살붙이, 한식솔로 여기시며 인민이 겪는 일시적인 애로를 두고도 그토록 마음쓰시고 피해지역의 살림집완공이 그리도 기쁘시여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제일먼저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라고 토로하였다.

은파군, 신계군, 평산군, 장풍군, 재령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피해지역

병사들의 어버이

오늘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나날이 강화되여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이 백전백승을 떨쳐가고있는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의 자욱을 더듬을 때면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안겨온다.

주체93(2004)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아주시였다.

훈련이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부대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감시대에 모시였기에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문득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는것을 감시대밖에 나가서 보자고, 군인들이 밖에서 찬비를 맞으며 훈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시대안에서 훈련을 보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을 막아서는 일군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념려하는 동무들의 마음은 알만 하다고, 그러나 군인들이 비를 맞으며 훈련할 때에는 최고사령관도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찬비가 내리는 곳에 서시여 그들의 훈련을 끝까지 보아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도 병사들을 위해 있다시며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가시덤불길도 서슴없이 헤쳐가시여 따뜻한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령장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천리전선길, 험한 칼벼랑길도 서슴지 않고 병사들을 찾아가신 그이께서는 때로는 병사들과 허물없이 야전식사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군인들이 어둠속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귀중한 시간을 바쳐 승용차전조등도 비쳐주시였다.

몸소 훈련장의 가마마차우에 오르시여 가마뚜껑을 열어보시면서 전사들이 어떤 국을 먹는지 직접 알아보신 사실과 한 병사의 음악적재능을 헤아려 성악배우로 키우도록 하시고 붓글씨를 잘 쓰는 병사에게 서예도구일식을 보내주신 그이의 사랑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그 사랑은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킨 원동력으로 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본사기자

들에서도 새집들이의 기쁨이 넘쳐났다.

황해북도 신계군 추천협동농장 농장원 리성옥은 몸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가까이에서 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불시에 재난을 당하고 한지에 나앉았던 사람들이 돈 한푼 안 들이고 오늘 이렇게 새 집을 받아안으니 꿈을 꾸는것만 같다. 이번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우리 운명의 하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잘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진정 피해지역 어디 가나 가장 어려운 속에서 가장 진실하게 어버이의 사랑을 체험한 인민의 남다른 기쁨이 넘쳐흘렀다.

본사기자 김성경

기적과 위훈창조로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마중가는 조국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소식들이 전해지고있다.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진 또 전진의 충천한 기세와 강용한 분발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것은 조국인민들이 대를 이어 물려주고 물려받는 전통이다.

돌이켜보면 조국인민들은 당대회들을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로 맞이하군 하였다.

력사적으로 놓고보아도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떳떳이 당 제2차대회[주체37(1948)년]장에 들어섰으며 전쟁의 재더미를 가시고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당 제3차대회[주체45(1956)년]를 맞이하였다.

당 제4차대회[주체50(1961)년]가 열리기 전에는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5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고 당 제5차대회[주체59(1970)년]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천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당 제6차대회[주체69(1980)년]전에는 100일전투를 벌려 공업총생산액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주체105(2016)년에도 조국인민들은 70일전투를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훈을 창조하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때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였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켰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하루밤 자고나면 상반년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공장, 단위들이 늘어났고 어느 부문에서나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로써 70일전투기간 공업생산을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로 장성시키였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국인민이기에 걸어온 길을 긍지높이 뒤돌아보고 총화하며 조국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당 제8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에 용약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 80일전투를 벌릴것을 발기하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도록 진두에서 이끄시고있다.

그이께서는 80일전투의 주되는 투쟁목표중의 하나인 피해복구현장들을 련이어 찾아가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호소는 총돌격전을 벌리는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드세차게 해주었다.

전국각지에서 당창건 75돐을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년말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있다.

선차적으로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인민들의 고통을 가셔줄 큰물과 태풍피해복구를 완료해나가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올해농사를 잘 결속하고있으며 다음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올해에 계획된 국가적인 중요대상들을 적극 추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년말까지 최대한 다그치기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만난을 박차고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열의에 의하여 80일전투승리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기술개건으로 생산을 장성

평양시 평천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베아링공장은 각종 베아링을 생산하는 크지 않은 공장이다.

주체50(1961)년 창립당시 베아링을 수백개밖에 만들지 못하던 공장은 오늘 수백만개 능력의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기사장 박경호는 《8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는 매우 높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장성의 중요한 고리를 설비의 기술개건과 재자원화에서 찾고 이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의 설계연구소에서는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저온소성법에 의한 자기연마석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연마석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석탄가열로들에 석탄반가스화연소기술도 도입하여 연료를 40%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1.5배로 높이였다.

그리고 홈연마반들에 수자조종체계를 도입하여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였다.

공장에서는 재자원화사업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볼로라직장에서는 볼생산과정에 나오는 페설물을 리용하여 여러 규격의 베아링볼을 수만여개나 생산하고있으며 다 쓰고 버리던 자기연마석들을 재자원화하였다.

직장장 류정철의 말에 의하면 한개의 페설물로는 직경이 16㎜정도인 베아링볼을 5알정도 생산하는데 한해의 생산량을 합치면 그것도 결코 작은 량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작은것이지만 하나라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의 애국의 마음들이 수많은 생산예비를 찾아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올해에만도 백수십종에 수백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과학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옷설계를 창안하고있다.

자동누빔작업

공장에서 생산한 옷제품들

동흥산은하피복공장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자리잡고있다.

공장은 비록 크지 않고 종업원수도 많지 않지만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배인 문명선은 《성과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몇해전부터 경영업무를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 나날에 여러가지 기술봉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홈페지를 통해 선진기술과 경험도 제때에 일반화하게 되였다.

공장의 기술과 성원들은 다품종소량화의 원칙에서 최량화, 최적화된 재단프로그람, 공정별프로그람들을 개발도입하였고 공정지도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도 세워놓았다.

얼마전에는 나라의 긴장한 전기를 쓰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묘안을 찾아 현실에 도입하였다.

리성진, 최기남을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은 보이라의 효률을 높일수 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제작원가가 적고 수리보수가 쉬우며 실용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새형의 보이라를 제작도입하여 많은 자금을 절약하였고 피복제품의 질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종전보다 전기를 적게 쓰고 원가를 줄이며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는 등 많은 경제적실리를 얻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동력뿐아니라 지구들도 종업원들의 지혜로 해결하여 새 제품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이 모든것은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생산을 담보해주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학부에 체계적으로 입학시키고 그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그 나날 지배인 문명선은 재학기간 여러건의 발명을 하였으며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도 창의고안명수들로 자라났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높이 세운 8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927닭공장의 종업원들이 최근년간 자체로 전력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과 국가의 조치에 따라 닭공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국가전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처음 공장종업원들은 소규모의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여 사무실의 조명이나 콤퓨터전원을 보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그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공장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고 나라의 전력생산에 보탬을 줄수 있는 전력생산체계수립에 달라붙었다. 정작 태양빛발전소건설에 착수하였지만 발전계통의 선택을 놓고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것은 독립형과 계통병렬형의 발전체계가 공장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종업원 누구나 새로운 형의 발전계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복합형태양빛발전체계를 연구완성할수 있었으며 그것을 현실에 도입하여 수백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였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공장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하여 그들은 닭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전력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어 해마다 많은 량의 벼겨를 회수처리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체계도 완성하였다.

자연에네르기와 닭배설물, 벼겨를 리용하여 2중, 3중으로 생산되는 많은 전력은 지금 큰 은을 내고있다.

닭호동들에 물을 보내주는 양수설비들과 고기가공장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가 하면 먹이가공장의 설비들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질좋은 배합먹이를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지난 시기 전력사정으로 만부하로 돌리지 못하던 공정들마다에서도 생산의 동음이 울리고있다.

지금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향한 이곳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전력생산체계에 대한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과 함께 전력생산능력을 보다 높일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계속 힘을 집중하고있다.

그들은 이 과정에 자기 힘이 제일이며 그것이 자기 공장의 밝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는것을 간직하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공장에서 생산된 고려약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

효능높은 고려약품들을 생산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는 청류제약공장이 자리잡고있다.

공장의 력사는 길지 않고 종업원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공장의 의약품생산과 판매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최근시기에만도 이곳 공장의 연구사들은 여러종의 천연약재들을 리용하여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개발하였다.

긴코비아교갑약과 실리바이교갑약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은행잎에서 해당한 성분들을 추출하여 만든 긴코비아교갑약은 동맥경화의 원인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여 심장 및 뇌혈관질병환자들속에서 인기가 있다.

실리마린과 바이칼린으로 구성되여있는 실리바이교갑약은 림상실천을 통하여 실리마린이나 바이칼린을 단독으로 쓸 때보다 항독, 항산화, 항염증, 항비루스작용이 1.5배이상 높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이 약품들은 주체103(2014)년에 국내특허를 받았으며 국가적으로 우수한 약품들로 등록되였다.

그후 여러차례의 국제전람회들에 출품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효능높은 파낙시디울주사약, 폴리카린교갑약, 양게론교갑약, 단삼당뇨교갑약을 련이어 개발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일군인 리근희는 《우리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의약품생산에서 품질우선의 원칙을 고수하여 이번 80일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청류제약공장의 고려약들

무공해생물비료 《록색영양제》

최근 효능높은 무공해생물비료 《록색영양제》가 개발되여 현실에 도입되고있다.

함흥농업대학의 과학연구집단은 오래동안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종전에 리용된 생물비료들의 일부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한 새로운 무공해생물비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무공해생물비료 《록색영양제》는 잎분무용 생물비료이다.

이 비료를 리용하면 식물의 싹트기가 촉진되고 싹트는 힘이 세지며 식물성장이 눈에 뜨이게 왕성해져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그리고 알곡, 남새작물, 화초류들의 종자처리와 성장에 효능이 높을뿐아니라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살충, 살균제들과 섞어써도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우수성으로 하여 무공해생물비료 《록색영양제》를 리용한 여러 단위들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본사기자

강냉이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여

조국에서는 강냉이가 밭곡식의 《왕》으로 되고있다.

그만큼 강냉이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농작물이다.

조국에서 강냉이가공품의 질이 높아지고 료리의 가지수가 늘어나면서 강냉이료리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인기있는 음식으로 되고있다.

《황금이삭》강냉이가공품들

최근시기 《황금이삭》강냉이가공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것은 가공품들이 아무런 첨가제도 섞지 않고 순수 강냉이를 초미분하여 만든 식품들로서 맛이 좋고 소화흡수률이 높으며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좋은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제품들은 평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있다.

공장은 조업한지 5년밖에 안되지만 생산과 제품의 질, 설비능력에 있어서 전국의 강냉이가공공장들의 모체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강냉이국수, 옥쌀, 강냉이단묵, 강냉이강정, 강냉이차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20여종에 40여가지이다.

제품들은 강냉이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수만t의 강냉이처리능력을 가지고있는 공장은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강냉이가공의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강냉이국수와 옥쌀은 제품생산량의 95%로서 기본생산지표로 되고있으며 대중의 수요도 높다.

기술준비실 실장 박승걸은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고 할 때 그것은 제품의 눈맛과 입맛, 영양가와 가격에 관계된다. 눈맛과 입맛 그자체는 제품의 질을 규정한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랭분쇄에 의한 방법으로 강냉이가루의 립도를 보다 낮춤으로써 가공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이렇게 생산되는 강냉이국수와 옥쌀은 광택도와 투명도가 높고 소화흡수가 잘되며 구수한 맛을 내고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한다.

공장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수천t의 강냉이가공품들은 평양시민들의 식생활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오탄강냉이전문식당

평양시민들은 누구나 강냉이음식의 진맛을 보려면 오탄강냉이전문식당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식당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언제나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식당은 《황금이삭》강냉이가공품들을 가지고 갖가지 강냉이음식을 전문으로 만들어 봉사하고있는데 그 가지수만 하여도 100가지가 넘는다.

식당에서 손꼽히는 료리는 강냉이국수이다.

랭면과 온면, 강냉이시래기된장국수, 강냉이우동 등 강냉이로 만든 국수만 하여도 그 종류가 수십가지나 된다.

특히 강냉이랭면은 그 맛이 독특하여 하루에도 수백그릇이나 봉사되고있다.

료리사 김원희는 강냉이랭면은 시원한 오이랭국에 양배추김치물을 섞어 만든 국수물에 양배추, 고구마잎줄기, 버섯, 풋고추, 미역줄기볶음을 꾸미로 하여야 제맛이 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뭐니뭐니해도 노르스름한 색갈과 매끈하고 짤깃짤깃한 국수발, 알맞춤한 굵기가 국수의 맛을 더욱 살리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밖에도 식당에서는 풋강냉이지짐, 강냉이찹쌀튀기, 강냉이쌈, 강냉이찐빵, 강냉이잣볶음, 강냉이국수튀기, 강냉이만두, 강냉이크림, 강냉이막걸리 등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이곳 주방장은 《식당에서 강냉이음식의 진맛은 료리사들의 특이한 료리비법에도 관계되지만 보다는 료리의 원자재로 쓰이는 <황금이삭>가공품들의 질이 높은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황금이삭》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교원들의 외국어발표모임

국가망을 통한 실무학습을 진행한다.

교편물들을 준비하고있는 수학분과 교원들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김형직사범대학부속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의 성과가 주목되고있다.

시적으로 실력이 높은 학교로 손꼽히는것은 물론 해마다 200여명의 졸업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들에 입학하고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거리고급중학교에로 향하고있다.

최정화교장은 《부지런한 농사군이 봄내여름내 땀흘리며 땅에 량심을 묻어야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수확할수 있는것처럼 교원들도 45분의 매 교수에 자기의 량심을 묻을 때만이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있다.》라고 서두를 떼였다.

이 학교의 부교장으로 사업하다가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갔던 최정화선생이 다시 이 학교의 교장으로 온것은 주체103(2014)년이였다.

며칠동안 교수참관을 진행한 교장은 45분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를 계발시키는 과정으로 되지 못하고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였다.

교장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보다 먼저 교원들의 량심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자신부터가 선진교육발전추세를 연구하며 교원들에게 산모범을 보이였다.

미래라는 거목에 자기들의 량심을 바칠 때만이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교원들은 교수설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매 교원들이 학생들을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교수설계자료집을 만들고 새 교수방법들을 연구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였다. 학생들의 시험성적평가에서는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문제풀이를 독창적으로 한 학생들을 적극 내세워주었다.

교수에 혼심을 바치는 교원들이 늘어났지만 최정화교장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에게서 먼저 받았다. 매해 12월이면 교장은 학생들속에 들어가 교원들의 강의수준을 알아보고 교원들이 좀더 수준을 올리도록 요구성을 높이였으며 교원호상간에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이 나날 유경민교원을 비롯한 많은 교원들의 교수방법은 전국에 일반화되였으며 이 학교 교원들은 여러차례 전국교수방법토론회에서 1등을 하였다.

이런 토대에 기초하여 학교에서는 교실들과 10여개의 실험실습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였으며 교육조건과 환경도 몰라보게 일신하였다.

후대들을 위해 량심을 바쳐가는 교원들의 모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리충정, 전향미, 박은심을 비롯한 졸업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이 학교의 교단에 섰다.

새 교원들이 올 때마다 최정화교장은 《교원들은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는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구주성

《나는 젊어서부터 군대에 나와 천하의 성들에 대한 공방전을 무수히 보아왔으나 이처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항복하지 않는 곳은 아직 본적이 없다. 이 성의 장수들은 후날에 반드시 모두 장상대신이 될것이다.》

이것은 1231년 고려군과의 구주성전투에서 패전한 외적장수가 한 말이다.

구주성은 994년에 평안북도 구성시에 쌓았던 성을 말한다. 구성은 10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까지 구주라고 불렀다.

고려봉건국가는 구주가 고려 서북지방의 요충지였으므로 구주성을 쌓고 그후 이곳을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하였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내성은 옛 구성읍을 에워싸고 쌓은것이며 외성은 내성의 서북쪽에 덧붙여 쌓은것이다. 내성의 동쪽벽과 북쪽벽은 동문천쪽의 절벽을 따라 쌓았고 서쪽벽은 룡선의 바깥면에 대체로 외면쌓기방법으로 축조했으며 남쪽의 평지대에 련결된 일부분만은 량면쌓기방법으로 하였다.

굴곡이 심한 룡선의 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 쌓은 성벽에서 바깥으로 돌출한 부분에는 치를 설치하였던 자리가 지금도 20여군데나 뚜렷이 남아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구주성의 성가퀴에는 852개의 타가 있었으며 매 타에는 먼곳을 쏘는 구멍과 가까운 곳을 쏘는 구멍이 있었다.

내성의 동, 서, 남, 북쪽벽과 외성의 서쪽벽에는 문터가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구성남문은 전후 옛 모습대로 복구되였다.

구주성은 고려시기에 외적들을 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조국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를 보여주는 구주성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여있다.

실내에서의 자연의 향취

- 도시라고 해서 자연과 떨어진것은 아니다.
-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정과 사무실에 자연을 불러올수 있다.

창문농장의 대대적인 출현으로 어디서나 이런 말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창문농장이란 해빛이 잘 드는 창가에 재배장치를 설치하고 심은 잎, 열매남새를 비롯한 식용 및 약용원예식물, 향료식물들을 자연의 빛과 온도, 영양액을 리용하여 수경재배방법으로 재배하는 농장을 말한다.

이전시기에도 사람들은 살림집의 베란다와 사무실의 창턱우에 여러가지 화분을 놓고 꽃이나 남새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 정서생활과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창문을 리용한 남새나 화초재배에 현대과학기술이 도입되면서 창문농장은 그 형식과 규모가 보다 다양해졌다. 기둥모양도 있고 벽면록화를 목적으로 만든 시설들도 있으며 정원과 베란다같은 곳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도 있다. 뿐만아니라 수지관을 리용하여 만든 창문농장시설들도 대대적으로 출현하고있다.

조국에서는 창문농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가정과 사무실들에 생활의 정서를 더해주고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창문농장을 현실조건에 맞게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벌려 새로운 무토양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여러가지 형식의 재배시설들을 완성하여 내놓고있다.

이곳에서는 사용자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재배시설들을 설치해주고 작물에 따르는 영양액들도 제품화하여 재배기질과 함께 봉사하고있다. 재배시설들가운데는 가정들에서 흔히 쓰는 수지함이나 수지병과 같은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재배시설이 있는가 하면 화초와 같은 관상식물을 심을수 있는 장식용창문농장시설 등 여러가지가 있다.

남문수연구사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듯 요구하는 창문농장시설도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보통 창문의 면적을 2㎡라고 볼 때 세대수가 50만세대인 도시에서 농작물재배에 리용할수 있는 면적은 거의 100만㎡나 된다고, 이것은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량득의 효과를 주는 창문농장은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기관들에도 도입되고있다.

다양한 용도에 맞게 설치된 창문농장들에서 사람들은 토양을 전혀 리용하지 않으면서 사시장철 자기 손으로 무공해남새를 재배하여 식생활에 리용하는것은 물론 록색환경으로 자연의 맛과 향취를 느끼고있다.

다년간 창문농장의 덕을 보고있는 려명거리에서 사는 리수련은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이 부루, 도마도, 딸기, 오이 등 식물의 성장과정을 체험하면서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도록 하니 더 좋았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기 위하여 농촌을 견학시키군 하였는데 이제는 그 품을 덜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창문농장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주는것은 물론 도시환경과 미화에도 유익하다.

사무실에 설치한 창문농장시설들

화분형창문농장시설들의 일부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건강에 좋은 들쭉

들쭉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산열매이다.

들쭉은 심장혈관계통, 순환기계통의 질병예방 및 치료, 물질대사촉진, 기침멎이, 방사선피해방지, 약물중독해제 등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들쭉은 피를 맑게 해주며 껍질채로 먹는것이 좋다.

들쭉즙이나 말린 들쭉은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

열매는 류마치스, 통풍치료에도 좋으며 들쭉과 딸기를 섞은것은 저산과 신석증치료에 리용하고 열매를 삶아 우려낸 물은 습진과 종처자리에 바르면 좋다.

또한 들쭉즙은 어린이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이다.

녀성들이 들쭉을 많이 먹으면 유선암발생위험성을 낮출수 있다.

들쭉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은 장내미생물들과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일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들쭉으로 만든 식품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순환을 촉진한다는것이 밝혀졌다.

* * *

아버지가 활약하던 축구마당에 서서

리유일

지금으로부터 7년전 려명체육단(당시 초병팀)의 축구감독으로 사업하던 리유일이 평양국제축구학교 실기교원으로 배치되여 일할 때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실력에 탄복하였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리유일교원의 아버지는 주체55(1966)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천리마조선의 축구신화를 창조하였던 축구팀의 문지기 리찬명이였다.

당시 리찬명은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문지기들가운데서 키가 제일 작았지만 아시아의 《고양이》, 《영웅적인 문지기》, 《자석문지기》 등의 별칭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였다. 특히 이딸리아팀과의 경기에서 마감시간을 5분정도 앞두고 상대팀선수가 차넣기를 한 공을 무려 8m되는 거리를 날아뽑으면서 잡은 모습은 축구력사에 보기 드문 장면으로 기록되였다.

그후 아버지는 4.25축구선수단의 축구감독으로 활약하다가 은퇴하였다.

유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축구를 알게 되였고 축구기술을 부단히 련마하여 4.25체육단 축구선수로 활약하였다. 그후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후 국제축구련맹(FIFA), 아시아축구련맹(AFC)에서 조직하는 경험토론회, 감독강습 등에 참가하고 AFC의 B급축구감독자격을 가지고 려명체육단 축구감독을 하게 되였다.

그후에는 국제축구련맹 심판원자격을 받고 국제심판원으로도 사업하였다.

《조국의 축구를 하루빨리 발전시키자면 종전의 육체, 기술, 전술체계에서 벗어나 전술사고능력과 경기활동능력을 높여주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기초기술교육에 힘을 넣어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늘 주장하고 실천해가는 신조이다.

그는 세계축구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조국의 축구에 내재하고있는 우단점들을 분석해보며 과학적인 교수훈련체계를 내놓았으며 교육실천에서 그것이 큰 은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후 학생들의 축구수준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학생들은 림기응변으로 수시로 변화되는 경기상황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였고 속도, 인내력, 유연성 등의 육체적능력의 요소들에서 현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유일은 학생들의 훈련강도를 보다 높이였다. 달리기훈련만 보아도 실지 경기과정에 필요한 달리기, 축구에 이바지할수 있는 달리기로 되도록 훈련을 모두 과학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은 주체104(2015)년 중국에서 진행된 제4차 코디온컵국제소년축구초청경기대회(14살)에서 1등을 한데 이어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 소년축전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 그가 이끄는 남자축구종합팀은 아시아축구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자격경기에서도 1등을 쟁취하였다.

당시 경기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한 아시아축구련맹의 한 관계자는 조선축구의 미래를 보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현재 유일은 국제축구학교 실기교원, 때로 남자축구종합팀 감독사업을 하는가 하면 아시아축구련맹이 선정한 감독강습강사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고있다.

그는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축구감독으로 선정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감독들의 강습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있는 리유일

전술강의를 하고있는 리유일

법적으로 담보되는 시책들

지난해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 선거된 수백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로동자와 농장원, 녀성들이 적지 않다.

그들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이였던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조길녀도 있다. 평범한 도로관리원인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으로 또다시 선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6조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지적되여있다.

조국이 실시하고있는 시책들중에는 전반적무료교육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전반적무상치료제, 국가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 영예군인우대제 등이 있다.

그러한 시책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풍부화되여 오늘은 수백가지나 된다.

교육시책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주체101(2012)년에 발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에는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12년간 무료로 의무교육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수십가지의 인민적시책들이 새롭게 제정되였고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체계가 세워짐으로써 각 분야의 근로자들이 콤퓨터망을 통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등 여러가지 시책들이 보충되였다.

상을 받은 장애자시인

리국철

지금으로부터 2년전 12월 청년중앙회관에서는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무대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지체장애자가 삼륜차를 타고나와 시를 랑송하는 모습이였다.

비록 요란하고 현란한 언사는 없어도 구절구절의 시어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어 누구나 시를 들으며 감탄하였다.

그 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평가된 시초 《람홍색국기아래 우리가 산다》의 한 대목이였다.

시를 랑송한 장애자청년은 작품을 창작한 리국철자신이였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장애자시인, 배우라고 부른답니다. 정이 실린 그 호칭을 들을 때면 가슴뿌듯해옴을 금할수 없습니다.》

라고 리국철은 서두를 떼였다.

국철은 어려서부터 두다리와 한팔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마당에서 웃고 떠들며 뛰여노는 아이들과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동무들이 부러웠다. 그리고 그들속에 있는 자신을 그려보군 하였다.

그후 그의 상상은 현실로 되였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에 의해 그는 선생님의 등에 업혀 학교로 갔고 동무들의 손에 이끌려 삼륜차를 타고 운동장에도 나섰다.

수업이 끝난 후이면 동무들은 국철이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그와 함께 모란봉과 대성산 등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철이가 최우등을 하였을 때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국철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글에 담았다. 그가 쓴 실화 《나의 동무들》은 주체84(1995)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처녀작으로 첫선을 보인 국철은 중학교때 동시를 비롯한 많은 문학작품을 써서 여러 문학상을 수여받았으며 5중우리교실문학상수상자의 영예도 지니였다.

그후 리국철은 조선작가동맹 후보맹원,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시인이 되였다.

수십편의 작품들을 지면에 발표한 그는 창작활동을 하는 속에서도 지난해 협회의 예술소조원들과 함께 중국방문의 길에도 올라 공연의 소개자로도 출연하였다.

언제인가 오스트랄리아의 한 장애자녀성은 그에게 어떻게 되여 시인이 되였는가고 물었던적이 있다.

그때 그는 《보고 체험한 생활이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나는 시인이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현재 김형직사범대학 원격교육학부에서 공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일군들과 작품협의를 하고있다.

조선장애자예술단의 중국방문공연에 참가한 리국철(두번째줄 가운데) 주체108(2019)년 촬영

조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해주고있다.

최근년간 전국각지에 수많은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올해에만도 큰물로 대재앙을 겪은 지역들에 국가의 투자에 의해 많은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차례졌다.

이것만 보아도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보건부문에서도 무상으로 검진과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있으며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진을 펼치고있다.

최근 몇년간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 보건시설들의 치료설비들은 그 값이 엄청나다. 하지만 인민들은 치료설비 한대값이 얼마이며 다른 나라에서 이 치료설비를 통해 한번 검진을 받는데 얼마만한 돈이 드는지 다는 모르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법학교수는 조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본주의세계를 대변한 우리의 법에서는 황금자본의 냄새, 돈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조선의 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적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발포되였다.

본사기자

만화영화노래로 인기있는 학교

선교구역 률곡고급중학교라고 하면 온 나라에 만화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잘하는 꾀꼴새학교로 소문나있다.

그만큼 이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 조선만화영화 《소년장수》를 비롯하여 많은 영화들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형상록음하였다.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독특하고 생동한지 어린이들은 그들의 노래를 곧잘 흉내내여 부르기도 하고 코노래로 흥얼흥얼 따라하기도 한다. 오락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도 어린이들은 주저없이 머리속에 기억된 만화영화노래들을 입에 올리군 한다.

아동들의 심리를 명중한 만화영화노래를 형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50여년전부터 많은 품을 들여왔다.

후대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교에서는 천성적인 소질이 있는 학생들로 음악소조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강화하였다.

하여 주체58(1969)년 조선아동영화 《놀고먹던 꿀꿀이》에서 나오는 노래 《동이 튼다 일터로 가세》를 아동합창으로 형상하였다.

그후 학교에서는 많은 아동영화들에 나오는 노래들을 전문으로 맡아 형상하였다.

꾀꼴새의 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청아한 그들의 노래는 온 나라 청소년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모으게 하였다.

주체92(2003)년에 아동음악반이 정식 나오면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아동음악반을 위한 교육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는데 맞게 학교에서는 시적인 범위에서 성악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음악리론과 시창, 률동, 성악 등 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주고있다.

30년간의 음악교수경험을 가지고있는 아동음악반의 공훈교원 한성희는 학생들이 소리형상에서 아동음악의 본성을 살리는데 모를 박고 동심을 살리도록 지도를 주고있다.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이 다양하듯이 소리색갈도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내도록 하기 위해 교수설계에 품을 들이고있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노래할 때 꾀꼴새를 생각하며 불러야 한다고 말하군 한다.

김혜금, 리은향, 리원옥교원들도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음악교육에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실천에 활용할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있다.

최근시기에는 가상증강현실기술을 도입하고 종합교육방식을 받아들여 음악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뿐아니라 그린접과목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있다.

순수 성악만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방면적인 인재로 될 때만이 노래형상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이곳 교육자들의 지론이다.

교육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아동음악반 학생들은 재학기간 누구나 임의의 악보를 인차 파악하고 노래로 형상할뿐아니라 다성부합창도 능숙하게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것은 물론 쟁쟁한 최우등생들로 자라고있다.

아동음악반 졸업생들중에는 7.15최우등상(학교 전기간 최우등을 쟁취한 고급중학교졸업반학생들에게 주는 상)수상자들도 많다.

하기에 지난 기간 이곳에서는 450여곡의 만화영화음악과 함께 260여곡에 달하는 예술영화와 텔레비죤문예물음악도 손색없이 록음하여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

력사와 전통이 있는 이 학교와 더불어 세월은 흘러도 맑고 청아하면서도 기백있는 학생들의 노래소리는 만화영화와 텔레비죤, 방송 등을 통하여 계속 울려퍼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상식

숟가락문화

세계를 둘러보면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포크와 칼을 리용하는 등 나라와 민족마다 식사방법이 각이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리용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유적에서 숟가락과 비슷한것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음식을 먹는 숟가락이 아니라 제사나 미용, 약을 짓는데 사용한 도구였다고 한다.

이웃나라들이 주로 저가락을 쓰는 반면에 우리 민족만이 예로부터 숟가락을 사용하게 된것은 우리 선조들이 조선반도에서 기원되여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낟알이나 열매, 고기, 산나물 등을 그대로가 아니라 가공하여 먹은것과 관련된다.

또한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밥을 주식으로 하였으며 특히 각종 김치와 국, 설렁탕 등을 비롯하여 물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것과 관련된다.

숟가락 하나에도 우리 민족의 문화가 비껴있다고 볼수 있다.

옛날부터 널리 써오는 조선식숟가락은 음식을 뜨는 부분의 우묵한 곳의 두께는 얇게, 그 변두리의 두께는 약간 두텁게 되여있다. 그리고 손으로 쥐는 숟가락의 자루는 길게 되여있다. 하여 음식이 손에 묻지 않게 되였으며 숟가락에 담긴 음식이 웃입술에 걸리여 말끔히 입에 들어가게 되였다.

선조들은 숟가락을 은이나 놋 등을 단조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숟가락의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다.

음식을 담아먹는 숟가락은 우묵하고 타원형으로, 약숟가락과 차숟가락 등은 작고 납작하게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상우에 제일 좋은 숟가락을 놓아주었다.

*　*　*

계속되는 창작활동

《서둘러야 한다. 서두르면 더 많은것을 얻을수 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 68인민반에 살고있는 오영환로인(87살)은 아들과 손자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있다.

이 말에 그의 한생이 집약되여있다.

인민기자이며 전쟁로병인 그는 홍안의 시절 출판부문에 몸을 잠근 바쁜 속에서도 서정시 《나의 고백》을 비롯한 수백편의 시작품들과 함께 문학창작에 도움을 주는 《작가의 문체》, 《작가의 생활철학》을 비롯한 많은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인간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담은 그의 작품들은 서정적색채가 진하고 개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늘 독자들의 좋은 평을 받군 하였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문학의 꿈을 자래웠고 전도양양한 시인, 소설가들로 자라났다.

로인은 년로보장을 받은 이후에도 장편소설 《포연삼천리》를 비롯한 4건의 도서들을 내놓았다.

전쟁로병인 그는 후대들을 위하여 필봉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전승세대라면 마땅히 후대들에게 정신적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있는 그다.

2년전 그가 창작한 장편실화문학 《강자로 사는 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자신의 전쟁체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수많은 전쟁로병들을 만나기 위해 취재길에 오르군 하였다. 고령이 넘은 그가 취재길에 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 나날에는 삼복철도 있었고 눈보라치는 겨울도 있었다. 그러나 로인은 전쟁시기 용사들이 발휘한 위훈을 후세에 남기고 새 세대들이 전승세대들을 따라배워 참다운 인생관을 지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그의 안해인 전쟁로병 최납일할머니도 그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런 노력으로 오영환로인은 근 100명에 달하는 로병들을 만나보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진귀한 사실자료들을 찾아쥐고 그것을 하나로 묶은 장편실화문학을 창작하였다.

로인에게는 창작의 《농번기》만 있지 《농한기》는 따로 없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안해와 함께 참가하였을 때에도 오영환로인은 전국의 로병들과 통성을 했고 많은 글감을 쥐게 되였다.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독후감을 나누기 위해 그를 찾아올 때면 로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없던 그 세월 토성랑거지소년이였던 나에게 시를 주고 소설을 준것은 바로 해방의 새봄이였다. 너희들은 다 조국의 아들딸들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길 때 나라를 위해 좋은 일도 할수 있는거란다.》

그의 붓은 오늘도 쉼없이 달리고있다.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전쟁로병 오영환부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향심

민족음식으로 인기모으는 신흥관

함흥시 동흥산기슭에 조선식합각지붕을 머리에 떠이고 서있는 신흥관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무엇에 끌려 손님들이 많은가?

이런 의문을 안은 우리는 함흥시 동흥산구역 새별동에서 살고있다는 조미애녀성에게 이 식당에 자주 오는가고 물었다. 알고보니 그는 단골손님이였다.

《함흥시내에 감자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지만 조선식지붕아래서 지방특산인 감자농마국수를 맛보는것은 정말 별맛입니다. 우리 가정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흥관의 감자농마국수를 먹어야 그 진맛을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신흥관의 단골손님들이 먼저 찾는 음식은 에네지금이나 감자농마국수이다.

국수의 주원료는 감자고장으로 유명한 부전과 장진지역에서 생산된 감자농마이다.

농마국수는 하얀 국수발이 가늘고 매끈하며 질긴것, 국수물이 맑고 양념이 특별히 매운것이 특징이다. 농마국수의 꾸미는 돼지고기와 꿩고기, 닭고기뿐만아니라 낙지나 명태, 대구 등도 회쳐서 쓴다. 농마국수는 꾸미에 따라 가지수가 다양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얼벌벌하고 썹는 맛이 유별한 명태회국수의 수요가 가장 높다.

신흥관에서 봉사하고있는 함흥농마국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농마국수뿐만아니라 감자로 만든 송편, 지짐, 짜배기, 단설기, 분탕볶음 등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고소한 맛이 풍겨오는 감자빵이나 금방 지져낸 따끈한 감자지짐, 쫀득쫀득한 감자송편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신흥관을 또다시 찾군 한다고 한다.

신흥관에서는 월에 1차씩 음식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음식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여가고있다.

료리사들인 조정숙과 한정희는 감자를 리용한 함경도의 지방음식들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는 공훈료리사들이다.

경리 최화숙은 《오늘 감자음식은 건강과 장수에 좋은 다양한 민족음식으로 발전되고있다. 감자음식맛에 끌려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는것은 신흥관의 자랑이면서도 함흥땅의 자랑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방문기

창조의 열매, 커가는 기쁨

우리는 얼마전 축산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찾았다.

원래 구빈이라는 지명은 단군이 9개 소국을 평정하고 족장들의 통합모임을 가진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것이지만 보다는 굽이굽이 산굽이를 톺아오르는 막바지산골이라는 뜻으로, 아홉가지 빈곤이 있다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여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고장은 지난 시기에는 사람 못살 고장이였지만 축산을 근기있게 잘한 덕에 지금은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전변되였고 평양시안의 여러 봉사단위들에서 젖가공품들을 실으러 차들이 줄지어오고 염소기르기경험과 젖가공기술을 배우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흥하는 고장으로 되였다고 김일후관리위원장이 말하였다.

언제인가 중국의 연길시에서 살고있는 김월성동포도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동포는 형님의 성묘나 하고 조카인 김진을 잠간 만나보는것으로 일정을 잡았지만 이곳에서 한주일간이나 머물러있었다. 고향땅의 전변에 마음이 흠뻑 젖어들어서였다.

그때 동포는 조카와 함께 염소방목지와 수려한 이 고장의 산들,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떼, 젖소무리들, 집짐승우리들과 젖가공실, 살림집, 문화회관 등 한폭의 그림과 같은 마을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았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고향사람들의 노력에 감탄도 표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월성동포의 조카 김진과 함께 농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농장에서 회계를 보고있었다.

《삼촌이 왔을 때보다 농장은 더 발전하였습니다. 풀판면적도 그렇고 염소와 젖소마리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젖생산량이 늘어나고 농장원 1인당 년간 수입액도 수십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이곳의 젖산균배양실과 젖분석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가 주목되였다. 특히 젖산균배양실에서는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한 균생산을 성공시켜 농장에서 리용하는 한편 전국각지에 보내주어 요구르트와 치즈생산을 하게 하고있었다. 그들은 균의 보관성,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있었다.

생명을 지켜 40여년

–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던 구급질병을 내시경에 의한 조작으로 헐하게 털었다.

– 조기진단을 받은 덕에 제때에 종양수술을 받고 생명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것은 김만유병원 내시경과 의사 최철선생에게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만큼 최철선생은 내시경조작에서 묘리를 가지고있다.

《최철선생님은 우리 과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과에 있는 내시경의료설비 하나하나에 그의 땀이 깃들어있습니다. 3년전에 나이가 많아 저에게 과장사업을 넘겨주었지만 고지식하고 탐구적인 그의 자세앞에 머리숙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라고 내시경과 과장 김성남은 이야기했다.

40여년간의 그의 의료활동은 환자들을 위한 헌신의 나날로 수놓아져있다.

그가 처음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받았을 때 권위있는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시경은 그야말로 세밀한 작업이요. 미소암이나 초미소암도 제때에 발견해낼 때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소.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눈이 되여야 하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하고 오래오래 살수 있소.》

그는 내시경설비에 숙달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그러나 당시 진행하던 2인법에 의한 대장내시경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간호원과 의사가 내시경을 들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것은 물론 환자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는 이것을 1인법에 의한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식사를 하면서도 내시경조작에 익숙하기 위하여 숙련했다.

《한번은 밥그릇을 놓고 텔레비죤에 나오는 내시경조작을 따라 손을 움직이였는데 온 가족이 다 식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치료 그만!> 하고 말하여 가족을 웃겼던적도 있습니다.》라고 그의 안해 김수련은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는 1인법에 의한 내시경방법을 내놓았으며 내시경설비의 현대화도 함께 밀고나갔다. 여러 참고문헌들을 조사하고 번역하면서 환자치료에서 더욱 성과를 올릴수 있게 내시경설비를 콤퓨터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전자내시경설비를 마련하는데서도 한몫 맡아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암들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하여 론문 《색소내시경에 의한 대장조기암진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내시경으로 대장조기암을 다른 질병과 쉽게 감별할수 있게 하였다.

최철(오른쪽)

환자치료에 전념하고있는 최철(가운데)

얼마전에도 그는 암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내시경적수술을 하여 환자가 생의 희열에 넘치게 하였다.

그의 치료일지에는 진단과정에 질병을 찾고 내시경적수술을 한 이런 일이 허다하다.

치료의 여가에 그는 《내시경치료학》, 《렌트겐, 내시경에 의한 소화관진단편람》, 《내시경상식문답집》, 《하부소화관내시경편람》, 《소화기내시경에 의한 진단과 치료》 등 많은 참고서, 단행본들도 집필하여 교육과 림상에 기여하였다.

로당익장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고 묻군 한다.

그때마다 그는 《나의 어린시절은 일본의 오사까에서 흘렀다. 9살 나던 해에 나는 함께 바다가에 나와서 놀군 하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나는 환자들을 소생시키는 의사가 될 꿈을 지니게 되였다. 나의 이 소원은 조국에 와서야 실현되였다. 조국에 나의 모든것을 바치고싶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를 더 젊게 만드는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세 자식에게 늘 하는 말이기도 하다.

부교수인 그는 현재 소화기내시경학위원회 위원장, 평양의사재교육대학 겸직교원으로도 사업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가정에서 손녀의 노래를 들으며

젖가공실에서는 산유와 요구르트, 치즈와 빠다생산을 정상화하고있었는데 그 품질이 나무랄데 없었다.

근면하고 강직한 이곳 사람들은 축산외에도 영양식품으로 되고있는 스피룰리나종자배양연구에도 힘을 넣어 전망이 좋은 종자를 얻어내였으며 전국에 널리 퍼치고있었다.

방목공들도 풀판조성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집짐승기르기를 활기있게 진행하여 해마다 고기와 젖생산을 늘여가고있었다.

방목공 리유석은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대로 축산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그전에는 구빈리에 시집오겠다는 처녀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처녀들이 시집오고 시집갔던 녀인들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창조한 기쁨의 열매는 어느 작업반, 어느 집에 가보아도 볼수 있었다. 집집의 뜨락에 서있는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아담한 문화주택, 걸볼안이라고 살림방들을 채운 생활필수품들…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만 한 흥하는 살림이였다.

이곳을 방문하였던 여러 나라 대표단과 기자들이 이런 글을 남겼다.

《당신들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여기에 와서 똑똑히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참으로 의지가 강하다. 이 농장만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여기서도 보게 된다.》

동포여러분은 전세대가 고향을 떠날 때에는 화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산골마을이 오늘은 축산전문협동농장으로 보다 밝은 래일을 가꾸어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고향소식

항구문화도시 원산

해외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얼마전 강원도 원산시에로 이어졌다.

조선동해안의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로 손꼽히는 원산시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몇해전 평양을 방문하였던 로씨야 싸할린주 홈스크시 슈꼴리나야거리 48번지에서 사는 김영철동포의 부탁대로 그의 형인 김영치로인부터 만나보았다.

원산시 와우동에 사는 그는 나이 여든을 가까이하고있었지만 퍽 정정하였다.

로씨야에서 태여난 그는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이 끝난 후 17살나이에 홀몸으로 선친의 고향인 원산에 왔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원산시에는 성한 건물이 별로 없었다는것이였다.

그러던 원산시가 오늘은 한개 도의 소재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원산시안의 곳곳에 나붙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였다.

그 정신은 원산시는 물론 강원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적극 추동하였다.

원산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제일 어려운 전기문제를 풀기 위하여 조선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조선동해로 돌려 원산군민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또한 날바다를 막아 제염소도 일떠세워 서해지구에서 날라오던 소금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였다. 그것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자체의 힘을 부단히 강화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자강력은 원산구두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도양묘장, 매봉산샘물공장 등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게 하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매봉산》상표로 생산되는 신발들은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가 실현되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전국에 알려졌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십가지의 식료품들도 인민들이 즐겨찾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화차생산과 수리능력을 종전에 비해 몇배로 올릴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관심밖에 있던 수지오물들을 재자원화하여 인공잔디를 생산하고있었다. 그것은 원산시뿐만아니라 강원도안의 여러 학교들의 운동장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또한 시에는 원산수산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을 비롯하여 교육, 보건, 문화기관들이 집중되여있을뿐아니라 동해의 명승으로 알려진 송도원에는 국제소년단야영소가 일떠서 해마다 국내외학생소년들이 이곳에서 야영의 기쁨을 한껏 맛보고있다.

더우기 유람선을 타고 원산의 특산음식인 조개밥이며 문어회를 비롯한 생신한 해산물을 맛보며 시내의 전경을 바라보는 멋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김영치로인은 《선친들의 유골이 묻혀있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을 자기 힘으로 가꾸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향토애, 조국애는 남다르다.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갈마지구가 현대적으로 일떠서게 된다면 원산의 면모는 또다시 달라지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주체108(2019)년 촬영

강원도인민병원에서

원산구두공장에서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기쁨과 환희속에 새해를 맞이하던 날이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주체109(2020)년 한해가 저물고있습니다.

이렇게 취재수첩을 펼치고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니 우리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한 올해는 조국청사에 있어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새해의 첫아침 텔레비죤화면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뵈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동포조직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의 의지를 굳게 새겨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맞추어갈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재중동포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을 맞으며 경축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향기그윽한 꽃바구니와 꽃다발도 삼가 드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신문,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우리 인민과 숨결을 같이하여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올해에 들어와 악성전염병이 세계를 휩쓸며 대재앙을 몰아오고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조국의 많은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단결된 힘으로 이 모든것을 과감히 극복해나갔습니다.

지난 8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현장을 그 누구보다 먼저 찾으시여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9월에는 함경남도의 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을 피해복구에로 부르는 공개서한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당과 한마음 한뜻이 되여 80일전투의 주요목표의 하나인 피해복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들로 무어진 사단들과 인민군군인들은 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를 낮과 밤이 따로없이 벌려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올해의 취재수첩을 한페지한페지 번져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언제나 승리와 행복, 영광이 온다는 진리를 실생활체험으로 새겨안은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안겨오고있습니다.

이렇게 당을 따르는 길에서 굳세여지고 위대하여진 인민의 모습에서 승승장구하는 조국을 본다고 하던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가에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이 헌신하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이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사회주의 우리 조국입니다.

정녕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사랑과 믿음, 정과 의리로 굳게 결합된 바로 이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동포여러분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항상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이해의 마지막달, 마지막날까지 동포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백문이 불여일견》

북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중의 하나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이 말은 《조선혐오증》으로 일관된 서방언론들의 비방선전과 다른 북에 대한 함축된 감탄이다.

나는 수년간 북에 대한 방문과정에 겪은 체험으로 그 불가사의의 진실을 밝히고저 한다.

북의 모습에서 제일 가슴을 울리는것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실상이다.

놀랍게도 북의 경제는 발전되였다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임풀스》곡선이 아니라 상승을 기록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와 화물차, 궤도전차, 뻐스 등을 생산해내고있는것은 물론이고 매대들을 꽉 채운 인기상품들의 대다수가 《금컵》, 《봄향기》, 《철쭉》, 《민들레》와 같은 국내상표들로 되여있다는것은 경제분야의 질적, 량적장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북에는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인민들이 문명을 높은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창조물들이 많다. 북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경탄하는 려명거리만 보아도 수십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많은 공공건물이 불과 1년동안에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건축물로 일떠섰다. 북의 인민들은 이 비결을 자력자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있다.

한편 북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북의 아이들은 여전히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운다. 그들을 위한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들이 나라의 각지에 훌륭하고 웅장하게 일떠서 아이들의 《전용궁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북의 무상치료, 무료교육시책에 대해서는 오늘도 세계가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언제인가 나는 평양산원에서 일곱번째로 태여난 네쌍둥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습관적으로 수판을 두드려본적이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산비가 1만US$, 산모의 하루입원비가 최고 1 200US$, 갓난아이의 하루입원비가 1 400US$인데 그 네쌍둥이산모의 160여일간의 입원비를 계산하니 엄청난 액수였다. 산모를 위해 함경북도 청진시의 육아원까지 오간 비행기값은 셈에도 넣지 않았다. 나라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 은장도, 금반지까지 주는 그런 사랑, 그런 은정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수 있단 말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이 그리워 삼복에도 등이 시릴 정도이지만 북에서는 엄동에도 인정의 봄기운으로 훈훈하다.

물론 북인민들의 생활은 풍족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땔나무가 없다고 사회의 기둥을 찍어 자기 집 부엌의 장작으로 만들지 않고 찬바람이 분다고 사회주의제도의 성돌을 뽑아 자기 집 울타리를 쌓지 않는다.

세상은 넓어도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자기 나라가 제일이고 세월은 흘러도 언제나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품을 떠나 남의 집 처마밑으로는 한발자국도 가지 않으려는것이 북인민들의 일심단결된 모습이다.

자력자강과 일심단결, 바로 이 거대한 정신적재부를 지니고있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그처럼 소리높이 부를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서방에서는 《조선은 악마의 나라이다. 사람들이 미개하고 그 나라에 가면 온전한것이 하나도 없다. 택시라고는 아예 볼수도 없다.》라고 떠들지만 나는 몇차례 북을 방문하는 나날에 한번도 실업자, 동냥자들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살인, 강도, 마약, 매춘 등 패륜패덕과 부패타락같은것도 찾아볼수가 없다.

해빛은 바늘귀로 보아도 눈부시다.

서방세계가 수십년동안 가혹한 반북제재와 경제봉쇄를 펴다못해 《려행금지조치》까지 취하고 날조된 자료를 세인에게 불어넣으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북을 《악마의 나라》, 《암흑의 땅》으로 매도한다면 사기와 협잡, 극단한 개인주의, 약육강식의 인간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서방세계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서방의 식견으로써는 북이야말로 참으로 《불가사의한 나라》인것이다.

재카나다동포 김수백

《네덩이의 얼음》의 의미

얼마전 본사기자는 장편소설 《네덩이의 얼음》을 창작한 작가 전인광선생과 마주앉는 기회를 가지였다.

기자: 선생님이 창작한 장편소설 《네덩이의 얼음》을 본 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의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소설의 구체적인 창작동기는 무엇입니까.

전인광: 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신문과 라지오, 텔레비죤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자 주체80(1991)년 8월 김학순이라고 부르는 한 녀성이 자기가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 당한 피해사실을 고발하며 일본정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생존해있던 피해자들이 지난날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수치감으로 수십년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해사실들과 목격자료들을 련속 공개하였습니다.

세계는 죽가마끓듯 하였으며 일본정부로 향한 비난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높아갔습니다.

하여 일본의 과거범죄를 놓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론의가 있었고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도꾜녀성국제전범법정》도 개최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파렴치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과거, 말하자면 흠이 되는 력사적사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새 력사교과서개정놀음까지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보니 나의 심장은 세차게 끓어번졌습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만도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녀인들을 잡아갔고 대낮에 자동차를 끌고와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가던 녀성,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녀성들을 짐짝처럼 걷어싣고 강압적으로 끌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동생들이 당한 이 치욕을 지울수 있습니까.

그런데 력사를 위조하려드는 일본이야말로 량심이 얼어붙은 나라입니다.

나는 이것을 파헤쳐보기 위해 수많은 피해자녀성들을 만나보고 다른 나라들에 나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장소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네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이야말로 온갖 과거죄악을 다 안고 정의와 평화의 대륙에 가붙지 못하는 네덩이의 얼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얼음들은 세계앞에 끼친 죄악의 력사를 깨끗이 반성할 때만이 녹아내려 대륙들에로 합류하게 될것이며 바로 여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세계에 말하고싶었습니다.

기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보니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취약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패망한지 75년이 되였지만 과거청산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부활에 더욱 미친듯이 매달리고있지 않습니까.

전인광: 그렇습니다.

올해에만도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를 비롯한 침략무장장비구입에 사상 최고수준인 5조 3 133억￥을 할당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정객들은 해마다 군국주의의 정신적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무리지어 찾아 참배하고 공물봉납놀음을 벌려놓으면서 일본사회에 배타주의와 군국주의찬미열기를 불어넣고있습니다. 더우기 일본군성노예범죄, 일제강제징용범죄를 비롯하여 과거죄악의 력사를 부정하다못해 정당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 2021년도부터 중학교들에서 리용할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 어지러운 침략력사를 전면외곡하거나 대폭 축소, 약화시켰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범죄의 온상으로 되며 불미스러운 과거를 안고가면 갈수록 그뒤는 더욱 감당키 어렵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을 절대로 그냥 묻어두지 않을것이며 기어이 응분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입니다.

기자: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길 바랍니다.

군사대국화의 종착점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군사대국화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이 수백억US＄의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F-35B》 수십대를 끌어들인다고 한다. 한편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일본의 공중과 해상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떠들면서 직승기호위함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개조하여 《F-35B》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착수한 극초음속공대함미싸일개발을 2030년까지 끝내는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적미싸일기지를 타격할수 있는 무기를 획득하는것은 일본이 고려할 선택사항이다.》라고 하면서 토마호크미싸일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일본 륙상《자위대》가 수직리착륙수송기 2대를 배치하고 앞으로 17대를 끌어들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수직리착륙수송기는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리우는 륙상《자위대》수륙기동단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수륙기동단은 오끼나와 미군훈련장에서 첫 련합훈련을 벌렸다. 이것은 일본이 해병대를 창설하고 상륙작전준비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들이다.

군대보유, 참전권, 교전권을 박탈당한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도전하여 《자위대》를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재편성하고있는것은 일본의 재침야망이 이미 한계점을 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실지 일본은 앞으로의 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소동을 전례없이 벌려놓고있다.

혹가이도에서 벌린 대규모전쟁연습에는 수륙기동단을 포함하여 약 1만 7 000명의 병력이 투입되였다. 연습에 《외딴섬방위》를 맡고있는 수륙기동단이 참가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연습의 목적은 부대들이 신속히 전선에 전개하는 능력을 련마하는데 있었다.

나가사끼현에서도 기동전개훈련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 군사훈련이 벌어졌다.

일본의 해외파병도 적극화되고있다.

아덴만과 중동해역에서 활동하고있는 해상《자위대》함선들과 교대할 호위함 《오나미》호와 《기리사메》호를 련속 출동시킨데 이어 남부수단주둔 《자위대》의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으로 《자위대》무력의 선제공격능력을 키워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의 섬들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침략의 구실을 찾고있다.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는 지난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불행을 당한 아시아인민들과 세인의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은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책동이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강냉이쌈의 별미

동포여러분, 이 한겨울에 우리는 조국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강냉이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체109(2020)년 잡지의 마지막호의 《민족의 향기》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쌈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음식의 하나입니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부루, 곰취, 배추잎, 콩잎, 깨잎, 어린 피마주잎 등으로 쌈싸먹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아마 동포들도 강냉이쌈이라는 말자체가 잘 안겨오지 않을것입니다. 하여 이번호에서는 강냉이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냉이쌈은 밀쌈과 같이 강냉이가루로 지짐을 얇고 크게 지져서는 거기에 여러가지 볶음을 두고 속이 보이지 않게 말아 싼 음식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강냉이쌈을 봉사하고있는 오탄강냉이전문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은 동포여러분이 조국에 오실 때마다 숙식하고있는 해방산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강냉이국수를 잘하기로 소문난 이 식당에서 강냉이쌈을 창안하고 봉사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사이에 단골손님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합니다.

식탁에 놓인 강냉이쌈의 겉면은 강냉이의 고유한 노란색이여서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쌈을 한입 씹으니 그 맛은 정말이지 유별났습니다. 우리는 봉사시간이 지난 후 강냉이쌈을 전문으로 만드는 료리사 김국철(32살)과 만났습니다.

그는 강냉이쌈은 쌈의 기본인 지짐을 잘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강냉이가루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미분가루를 리용하고있었습니다.

료리사가 알려준 강냉이쌈만드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강냉이미분가루 1kg에 닭알 3알을 찬물과 함께 넣고 까룩하게 반죽물을 만들고 간을 맞춥니다.

다음 쌈속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게 탕친 돼지고기와 데친 배추잎, 물에 불구었던 분탕, 채친 홍당무우 등을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후추가루, 썬 파, 다진 마늘, 양파, 맛내기를 두고 맛을 냅니다.

쌈속은 손님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름을 두른 지짐판에 반죽물을 놓고 연한 불에서 지짐을 부칩니다.

강냉이가루 1kg으로는 직경이 20㎝인 지짐을 80개정도 지질수 있다고 합니다.

지짐과 속감이 준비된 다음에는 식기 전에 인차 쌈을 말아야 합니다.

이때 쌈속이 보이거나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강냉이쌈은 식기 전에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 상에 냅니다.

여러분, 이런 쌈은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식구들을 기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식생활전통을 장려하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우리는 앞으로도 전하게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3)

- 강원도의 특산식물들 -

강원도는 온대남부식물분포구와 온대북부식물분포구가 엇바뀌는 지역으로서 식물상이 다종다양하며 특산식물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산식물들로는 금강초롱과 금강국수나무를 들수 있다.

금강초롱은 1909년에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특산식물이다.

주체65(1976)년에 형태학적특징 및 학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신종으로 다시 발표되였다.

금강초롱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곧추 자라지만 웃부분은 좀 구불구불하다. 잎은 닭알모양, 길둥근모양이고 잎끝은 길고 뾰족하며 변두리는 톱이모양을 하고있다.

7~8월경 줄기끝에 한개 또는 몇개의 아름다운 초롱모양의 꽃이 내리드리워 피는데 색은 푸른 보라색이다.

금강초롱은 크고 아름다울뿐아니라 추위에 견디는 힘이 세며 한번 심으면 여러해동안 꽃을 피울수 있다. 번식은 씨 또는 뿌리가름으로 한다.

금강초롱은 우리 나라 식물상의 진화를 밝히며 도라지목과 국화목의 계통관계를 밝히는데서 학술적의의를 가지는 진귀한 식물인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관리되고있다.

금강국수나무는 주체6(1917)년에 금강산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1속1종의 특산식물이다. 금강산일대의 깊은 산 해발높이 400~800m 부근의 비탈진 바위벼랑에 붙어자란다.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넓은잎떨기나무로서 높이는 30~70㎝이다. 6월 하순부터 7월에 걸쳐 겹송이모양꽃차례를 이루면서 연분홍색의 잔꽃이 핀다. 열매는 쪽꼬투리열매이며 8월경에 익으면서 앞뒤면에서 벌어진다. 씨로 번식하며 가지심기로도 퍼칠수 있다.

금강국수나무는 식물체가 보기 좋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식물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나무의 꽃모양은 범의귀목에 속하는 식물들이 가지고있는 꽃의 특성들과 일부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장미목식물과 범의귀목식물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금강국수나무를 귀중한 식물로서 특별히 보호하고있다.

이밖에도 강원도일대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1속1종인 느삼나무, 운봉금매화를 비롯하여 금강봄맞이, 금강기름나물, 금강잔대 등 100여종류나 되는 특산식물들이 자라고있다.

금강초롱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부소장 주일엽

유모아

여름바람과 겨울바람

형: 《겨울바람은 작고 여름바람은 크단다.》

동생: 《그럴리가 있겠어요?》

형: 《보렴. 겨울바람은 작아서 방문을 꼭꼭 닫아놓아도 좁은 틈으로 곧잘 들어오고 여름바람은 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놓아도 너무 크니까 문에 걸려 들어오지 못하지 않니?》

* * *

금야철새보호구

새들의 지저귐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치로 하여 길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금야철새(습지)보호구는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다.

조선동해로 흘러드는 금야강과 덕지강의 하구에 위치하고있는 금야철새보호구는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에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200종이상의 새들의 서식지로 되고있다.

특히 위협종물새들인 흰죽지오리, 흰두루미, 물개리 등 10여종이 서식지로 리용하고있으며 쇠기러기, 갯두루미, 큰고니를 비롯하여 물새무리가 이곳을 먹이터로 리용하고있다.

금야철새보호구에 사철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것은 풍부한 생물다양성과도 관련되여있다.

조국에서는 주체84(1995)년에 조선동해중부연안의 넓은 지역을 금야철새보호구(2 000정보)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 일대의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국가적으로 이 일대에서 농경지개간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금야철새보호구일대에는 소금밭이 펼쳐지고 다양한 환경이 보존되여있다.

그런가 하면 새들의 먹이로 되는 여러가지 무척추동물들에 대한 보호증식에도 힘을 넣고있다.

자연재해로 파괴된 서식지들에 대한 회복사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수산증식사업을 적극 벌려 풍부한 먹이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보호구일대에 펼쳐진 드넓은 갈밭을 비롯하여 갖가지 식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여 새들에게 더없이 좋은 은신처가 되게 하고있다.

깨끗한 환경과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새들의 보금자리로 되고있는 금야철새보호구는 주체88(1999)년에 동아시아지역두루미지역망에, 주체107(2018)년에는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망에 등록되였다.

본사기자 김승기

① 갯두루미 ② 청다리도요 ③ 사막갈매기 ④ 검은머리갈매기
⑤ 흰죽지오리 ⑥ 대백로 ⑦ 흰두루미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9)

- 금장암사자탑-

금장암사자탑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금장골 금장암터에 있는 고려초기의 돌탑이다.

탑은 화강석으로 만든 3층탑으로서 밑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탑은 바닥단돌 네귀에 쭈그리고앉은 사자모양을 조각하여 탑몸을 떠받든것처럼 하였다. 사자탑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생긴것이다.

밑단의 구조는 특수하다.

밑단의 밑돌로는 높이 49㎝인 두툼한 네모돌을 썼으며 거기에는 아무런 치레도 없다. 밑단의 중간에는 가운데돌대신 네귀에 각각 한개씩의 돌사자가 있고 복판에는 돌부처가 놓여있다. 돌사자는 두다리를 힘있게 벋치고있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돌사자와 돌부처는 돌다듬새로 보아 좀 무뚝뚝하기는 하나 돌사자는 탑몸체를 떠받들려는 힘센 모습과 안정감을 잘 표현하였다. 돌사자대가리우에 얹은 갑돌은 방형평면으로서 너비를 넓게 하고 처마를 곧게 하여 수평을 강조하고있다.

탑몸은 3층이고 우로 올라가면서 차례줄임을 주었다.

탑몸의 몸돌밑에는 층마다 고임돌을 놓았다.

매층 지붕돌들에는 4단씩의 처마받침이 있으며 처마의 밑선은 곧고 웃선만 량쪽으로 가볍게 들렸으므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지붕면은 물매가 비교적 급하며 가벼운 곡선을 이루었다.

지붕돌마다 네귀에는 바람방울을 달았던 쇠고리가 남아있다.

금장암사자탑은 고려시기의 탑건축형식과 조각기술을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자료를 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다재다능한 녀인 신사임당

신사임당(1504년-1551년)은 그림과 글씨, 시문이 뛰여난 화가, 서예가, 시인이였으며 지성있는 교양으로 자식을 키운 훌륭한 어머니였다.

특히 그는 유명한 녀류화가로서, 이름난 학자 리이의 어머니로서 명망이 높았다.

신사임당은 1504년 10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여났다.

그는 천성적으로 재주가 남달리 뛰여나 녀자로서 배워야 할 바느질과 음식, 수놓이는 물론 글짓기, 글씨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잘하였다.

사임당은 특히 그림에 뛰여난 솜씨를 가진 화가였다.

그는 7살때 벌써 산수화와 포도를 그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시대 사람인 어숙권은 《패관잡기》에 이렇게 썼다.

《신부인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공부했는데 그가 그린 포도와 산수화는 절묘하여 평하는 사람들이 안견의 다음에 간다고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것이며 또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수 있겠는가.》

신사임당은 평생에 화첩, 족자, 병풍 등에 풍경, 새, 물고기, 날짐승 등을 생동한 채색화로 수백폭이나 그려 조선회화발전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가지》, 《포도》, 《물오리》, 《쏘가리》를 비롯해서 40여점이 남아 전해지고있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고 사실주의적형상이 뚜렷한것이 특징이다.

그는 실물을 정확히 묘사하고 구도와 위치를 잘 선택하여 그림을 정교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로 그려내는 묘기를 가지고있었다.

사임당의 그림이 얼마나 생동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신사임당이 그린 풀벌레그림 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습기에 찬 그림을 해빛에 쪼이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 내놓았는데 풀벌레가 어찌나 신통하였는지 닭들이 진짜로 알고 쪼아 종이에 구멍이 뚫어질번 하였다고 한다.

또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잔치집에 초청된 사임당은 한 녀인이 아차 실수하여 빌려입은 남의 치마를 어지럽힌것을 보게 되였다. 사임당은 녀인의 마음을 헤아려 더럽혀진 치마폭에 붓으로 소담한 포도송이를 그려주었다. 물기도는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이슬이 맺힌듯 한 푸른 잎사귀가 어찌나 생신하였던지 근심에 싸여있던 녀인도 모여섰던 사람들도 모두 황홀해하였다.

녀인은 그 치마를 팔아 원래 치마의 몇배되는 돈을 받았으며 새 치마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사임당은 글씨도 잘 쓰고 시짓기에도 능하여 《시서화의 3절》로 불리웠다.

그의 필적은 자획이 부드럽고 우아하여 녀성적인 맛이 다분히 나타난다.

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녀교양에도 힘썼다.

사임당은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는데 이들모두를 나라에 이바지할 인재로 키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다.

자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 되였는데 그중에서도 셋째아들인 리이(호는 률곡)가 특출하였다.

리이는 어릴 때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여 한번 책과 마주하면 침식을 거의 잊을 정도로 열중하였고 머리가 총명하여 한번 보면 막히는데가 없었다.

사임당은 이런 률곡을 더욱 사랑하였고 그의 성장에 무척 마음을 썼다.

후날 률곡은 리기이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가로 내외에 이름을 떨쳤으며 30년동안 우의정을 비롯한 여러 관직을 겸임하면서 정치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어머니의 필법을 이어받은 막내아들 리우도 당대에 유명한 명필이였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

*　　*　　*

지명유래

평안남도의 일부 지명들 (1)

평안남도는 조국의 중부에 놓여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지리적조건도 매우 유리한 평안남도에는 높은 산지대와 구릉지대가 있으며 열두삼천리벌을 비롯한 넓은 벌이 있고 대동강과 청천강이 흐르기때문에 물원천도 풍부하다.

평안남도는 고대시기에는 고조선, 세나라시기에는 고구려의 땅이였으며 그후에는 발해땅에 속해있었다.

고려시기에 와서 전국을 10개의 도로 나눌 때 오늘의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을 《패서도》라고 불렀다. 패서도는 패수(오늘의 대동강)를 낀 우리 나라 서쪽의 도라 하여 부른 이름이다.

원래 《패서》라는 말은 905년 궁예가 철원에 자리잡고 스스로 후고구려왕이라고 하면서 평안도지역을 《패서》라고 하고 13개의 진으로 나누어놓은데서 생겨난 말이다.

1102년에는 나라의 서북쪽에 위치한 고장이라 하여 서북면으로 고치였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13년에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면서 서북면을 평안도라고 고쳐부르게 되였다. 평안도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고을들이였던 평양의 《평》자와 안주의 《안》자를 따서 부른 이름이다.

이때부터 평안도라는 이름은 조선봉건왕조 전기간 그대로 불리웠다.

그러나 평안도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웠다.

강원도 고산군과 회양군사이에 있던 철령관문의 서쪽지방이라는데로부터 황해도북부의 일부 지역과 함께 《관서》라고 불렀으며 서쪽에 있는 도라는 뜻에서 황해도와 함께 《량서》또는 《황평량서》, 《서도》라고도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웃쪽에 있는 네개의 도라는 의미에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와 함께 《상사도》로, 북쪽에 있는 도라 하여 함경도, 황해도와 함께 《북도》로도 불리웠다. 또한 청천강을 경계로 한 남쪽지역(오늘의 평안남도지역)은 《청남》, 북쪽지역(오늘의 평안북도지역)은 《청북》이라고도 불렀다.

평안남도의 숙천과 순천은 고려 983년에는 숙주, 순주라고 불리웠고 개천은 1217년이후에 개주라고 부른 고을이다. 또한 덕천은 덕주로, 성천은 성주로, 맹산은 맹주로 불러왔다. 그러던것이 141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쳐져 오늘까지 부르고있다.

증산군과 녕원군은 고려때에 증산향, 녕원진으로 있었던 고을이고 양덕군은 1396년에 양암진과 수덕진을 합쳐 양덕현을 내온 후부터 오늘까지 양덕으로 불러온다.

평안남도의 지명에는 평안북도와 함께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역과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특성으로 하여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낸 력사적사실들이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

원래 안주시는 고구려시기에 강을 끼고있는 넓은 벌이 있는 고을이라 하여 《팽원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던것이 931년이후에 외적의 침략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안정을 찾은 북쪽고을이라는 의미에서 《안북부》로 고쳐졌으며 983년에는 나라의 안녕에 크게 이바지하는 고을이라는 뜻에서 《녕주》라고 고쳐불렀다.

그런가 하면 순천시는 고구려의 후손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낸 고을이라 하여 《정융군》이라고 하다가 고려 983년에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민심을 크게 안정시켜준 순화된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순주》라고 불렀다.

이처럼 평안남도는 력사가 매우 오래고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의 자취가 력력히 슴배여있는 지역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서학순

야 화

천하제일강산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련광정에 오르면 천정들보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쓴 큰 현판이 걸려있다.

이 현판의 글자는 옛날부터 전해오고있다.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련광정의 들보에 걸리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16세기 평양에 왔던 다른 나라의 한 사신이 어느날 련광정에 올랐다. 련광정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된 그는 그후부터 늘 이곳에 오군 하였다.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날이 왔다.

사신은 거리에 가서 목공에게 돈을 내면서 액자를 하나 잘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액자에 큰 글씨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정성들여 썼다. 사신은 그것을 가지고 련광정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세상에 태여나서 오늘까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수많은 고장을 찾아다녀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처음 봅니다. 이런 곳을 어찌 <천하제일강산>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 액자를 정각에 걸어주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액자가 련광정들보에 걸리게 되였다.

그후 어느해 여름이였다.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입해왔던 침략군의 적장이 평양에 기여들어 련광정에 오른 일이 있었다. 적장은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고 소리쳤다.

《저 현판을 당장 떼버리라. 이 나라에 어찌 천하에 제일가는 강산이 있다고 할수 있단 말인가?》

적장은 자기 군졸들이 현판을 떼내는것을 보고서야 련광정에 올라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다 저도모르게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연신 감탄하였다. 그는 기가 꺾인 목소리로 떼여내린 현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긴 칼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에서 《천하》라는 두 글자를 내리쳐 떼낸 적장은 《제일강산》이라는 글자만 이 남은 현판을 제자리에 다시 걸어놓으라고 하였다. 군졸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서 주저하자 적장이 하는 말이 《<천하>라는 말에는 비위가 거슬리지만 이곳이 제일강산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구나.》라고 하였다.

침략자들을 몰아낸 뒤 평양사람들은 《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그대로 놓아두고 전해왔다. 비록 《천하》라는 두 글자는 떨어져나갔으나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침략자들까지도 평양의 절경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평양의 자랑거리로 되였다.

그후 평양사람들은 《제일강산》이라는 현판에 《천하》라는 두 글자를 다시 써넣어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하였다.

* * *

조선속담 (게으름)

- 감나무밑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라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것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뻔뻔스레 놀기만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입에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과만 바라는 그릇된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 * *

명승-삼부연

삼부연은 함경남도 신흥군 부연리에 위치하고있다.

신흥군소재지에서 북쪽으로 28㎞, 해발높이 563m되는 곳에 삼부연이 있다.

삼부연의 세번째 담소옆 큰 바위에는 17세기초에 쓴것으로 전해지는 《삼부연》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는데 이로부터 이곳을 부연리라고 부르고있다.

삼부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년전에 형성된것으로 보아지는 기묘하고 거대한 바위에 3단폭포를 이루고있다.

삼부연은 70°의 경사에 6m의 길이로 떨어져 첫번째 담소에서 넘쳐나 30°의 경사로 4m 흘러내리여 두번째 담소에서 다시 넘쳐나 45°경사로 11m 흘러 세번째 담소를 이루고있다.

오래동안 패운 3개의 큰 담소와 절벽짬에 뿌리박은 울창한 넓은잎나무들로 조화를 이룬 삼부연의 경치는 볼수록 절승이다.

이 일대는 공기음이온이 매우 풍부하고 물속에 셀렌함유량이 많아 수질이 대단히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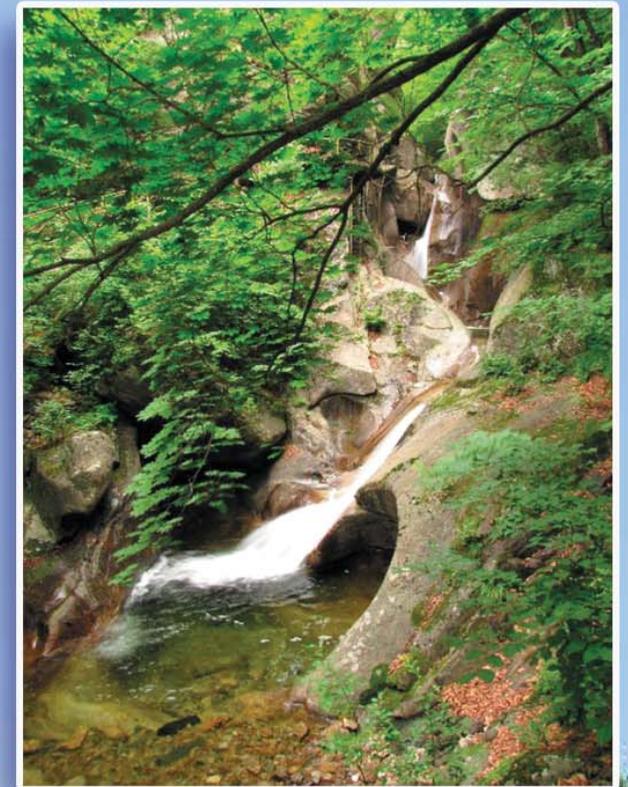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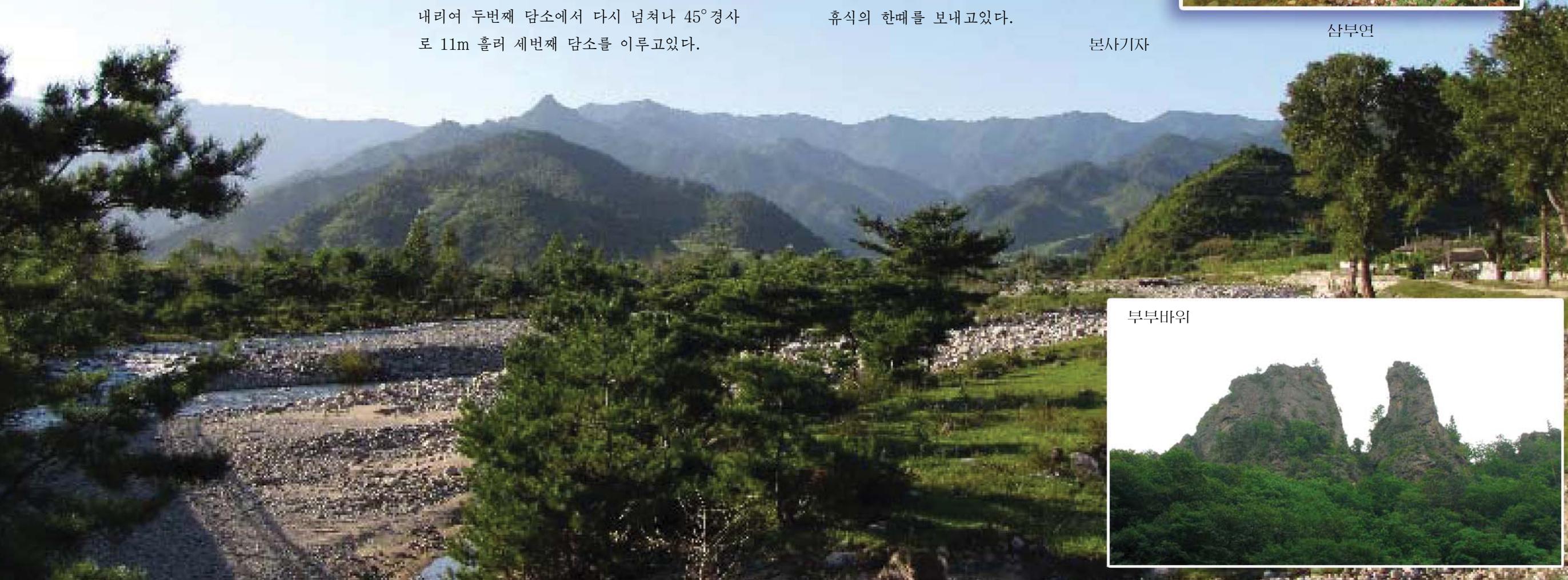
삼부연일대는 많은 동식물자원을 가지고있다. 소나무, 참나무, 만삼, 당귀, 삽주 등 많은 약초들이 있으며 메돼지, 노루, 산양, 산천어, 도롱룡 등의 동물들이 있다.

이 일대에는 또한 부연폭포와 남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천주폭포가 있다.

부연폭포에서 상류물길을 따라 1㎞ 올라가면 높이 10m의 쌍폭포를 비롯하여 하마폭포, 돌대문, 비자루폭포, 부부바위, 대바위 등의 명소들도 있다.

명승지구역에는 탐승로와 휴식터가 있으며 휴양소가 꾸려져있어 수많은 인민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부연폭포

삼부연

부부바위

칠보산의 겨울 본사기자 홍 훈

높고낮은 산봉우리들과 울창한 수림이 온통 흰빛이여서 그 이름도 설백산인가.

철따라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있는 칠보산이지만 하얀 눈세계가 펼쳐진 겨울의 풍경은 볼수록 장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266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